

폭염에 취약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7.31.(금) MBC, “폭염 야외노동 이주 노동자 또 사망..한 주에 한 명꼴”

2. 설명 내용

- 노동부는 폭염 취약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「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」을 발표('26.5.13)하였습니다.
- 지난 5월부터 ‘폭염안전 특별대책반’을 구성·운영하여 현장에서 ‘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’ 및 「폭염 단계별 작업중지」 조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집중 지도하고 있습니다.

[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]

- (체감온도 **33℃ 이상**, 폭염주의보)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
- (체감온도 **35℃ 이상**, 폭염경보) 무더위 시간대(14시~17시) 옥외작업 중지
- (체감온도 **38℃ 이상**, 폭염중대경보)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

- 농·축산업 외국인 고용 폭염 취약사업장(200개소)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실시(7.1.~7.31.)하여,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 및 숙소 내 냉방·소방시설 구비여부, 휴게시설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.
- 또한,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「폭염 집중 점검주간」을 운영하여 건설·물류·조선 등 폭염 취약현장(1,000개소)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하고, 9월 말까지 이주 노동자 고용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1.5만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.

-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및 농·축산업 등 폭염취약 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이주노동자 대상 폭염안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-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매를 위한 28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체감온도계·쿨키트·보냉조끼 등 15억 원 상당의 예방물품 보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18개 모국어로 번역된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 OPS를 배포하고, ‘중대재해사이렌’을 통해 폭염특보 및 온열질환 예방 정보를 사업주에게 실시간 전파하고 있습니다.
- 향후, 현장 지도점검 시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 이행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고,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 아울러,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충분한 물과 휴식 제공, 작업 시간 조정, 온열질환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작업 중단 및 응급조치 등 폭염 대비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안내하는 한편,
- 이주노동자 상담·지원 과정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작업상 어려움이나 건강 이상 등을 확인하고, 필요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.
- 다만, 기사에서 제시한 4건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, 한 명은 관광비자, 한 명은 영주(F-5), 한 명은 일반연수(D-4), 나머지 한 명은 고용허가제(E-9) 노동자임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	책임자	팀 장	신백우 (044-202-8890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박현건 (044-202-8891) 홍남교 (044-202-8895)
	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한은숙 (044-202-7157)
		담당자	사무관	김병순 (044-202-7223)